여수선언 포럼

2012년 8월 12일 15:00-17:30  대한민국 여수세계박람회
목  차

Ⅰ. 포럼 개요 .................................................................................................................... 05

Ⅱ. 프로그램 ................................................................................................................... 09

Ⅲ. 개막식 연설문 .......................................................................................................... 13

Ⅳ. 여수선언문 경과 보고 .............................................................................................. 27

Ⅴ. 패널 토론: 기조 발언문 ............................................................................................ 37

Ⅵ. 여수선언의 의의 및 주요 키워드 ............................................................................... 69

Ⅶ. 여수선언문(영문/국문) .......................................................................................... 73

Ⅷ. 2015 밀라노 엑스포 소개 ......................................................................................... 83

부 록: 여수선언 기초/검토 위원 명단 ........................................................................... 89
I. 포럼 개요
여수선언 포럼 개요

“바다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해양인들에게 2012년은 특별한 해이다. 올해는 해양관련 사안들이 전례 없이 국제사회로 부터 큰 주목을 받고 해양이슈가 국제사회 우선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금년은 “해양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 30주년이 되는 해이이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 해양을 주제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800만 명 이상의 국내 외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금년 6월에는 해양 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구체적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조한 Rio+20 컨퍼런스가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다.

민간 부분에서도 해양에 대한 열정, 발견, 혁신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도중에 타이타닉 영화감독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인용 유인잠수정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아나 트랜치의 해저 10,898 미터에 도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 외에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즈음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달리는 선박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투라노 프레딧 솔라 (Tûranor Planet Solar)”호가 태양열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역시 박람회라는 목적에 맞게 이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를 알리며 미래의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진보와 혁신이라는 박람회 정신 아래 여수선언과 여수선언포럼은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비전은 해양을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위한 동력원으로 주목하게 하는 동시에 해양의 건강성도 유지하며 바다와 인류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여수선언포럼에서는 전 세계에서 초대된 정부, 국제기구, 해양전문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들이 여수선언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고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해양 리더들이 해양엑스포가 열린 여수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큰 영광이며 해양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II. 프로그램
개막식

14:00 입장

개막식
15:00 개회사 강동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15:10 환영사 김황식 국무총리
15:20 환영사 비센트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 (BIE) 사무총장
15:30 축사 반기문 유엔 (UN) 사무총장

추진경과 보고

15:40 여수선언 추진경과 보고 장도수 여수선언 기초위원장

패널 토론

“여수선언의 정신을 행동 및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과 국제사회의 기대”

15:50 좌장 발표 칼-크리스천 슈미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과장
윌리 텔레비 유엔차관
이리나 보코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사무총장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환경계획 (UNEP) 사무차관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
강정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원장
코지 세키미츠 유엔국제해양기구 (IMO) 사무총장
필리아나 씨바세인 글로벌오션포럼 (GOF) 회장

질문과 답변, 결론

여수선언 낭독

17:05 “동영상을 통해 본 여수선언” (5분 동영상)
17:10 여수선언 낭독 윌리 텔레비 유엔차관
17:25 여수선언의 정신을 잇는 2015 밀라노엑스포 안내
로베르토 포르미고니 밀라노 엑스포 정부 대표
17:30 폐회

기자회견
III. 개막식 연설문

- 개회사: 강동석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 환영사: 비센트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 축사: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개회사

강동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님,
윌리 테라비 투발루 총리님,
여수션언 국내외 기초/검토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지난 5월 12일 개막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몇 시간 후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인류의 현안문제와 바다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바다와 인류의 공존방법을 관람객 스스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관, 기후환경관 및 국제관을 비롯한 모든 전시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러나 일관되게 표현되었습니다.

8백여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에 따른 각국 정부와 세계인들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수세계박람회는 매우 값진 기회였습니다.
바다와 연안에 관한 인류의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판인 ‘여수선언’에서
는 국제사회,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가 해양에 대한 자발적 책임의식을 가지
고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줄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선언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여수선언 포럼’에 여
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적 유산인
‘여수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
랍니다.

그동안 여수선언 성안을 위해 에써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도수 박사님
과 라운드 테이블 공동좌장을 맡아주신 빌리아나 씨신세인 세계해양포럼 회
장님, 그리고 여수선언 성안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윌리 테라비(Willy Telavi) 투발루1) 총리님,
로세르탈레스(Loscertales)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에 앞서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돈 듯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포럼 참석을 위해 멀리 외국에서 오신 각국 대표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는 산업화 이후
금속한 생산의 증대와 풍족한 소비를 바탕으로
유례없는 변영을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태계는 왜곡되어 왔고,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북방에 위치한 9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뤄진 나라. 인구 1만 2,373명('09년), 평균 해발고도 3m. 지구온난화로 수십 년간 2개 섬이 바다에 잠겼고 머지않아 전 국토 수몰 위기
또한, 고갈되어가는 육상 자원은
인류 부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고,
생물자원들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이 같은 소모적 해양개발을 중단하고
배려와 공유에 기초한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함께 나설로써
21세기 신 해양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세 달 동안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본정신이며,

여수박람회가 해양의 안정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앞세워
친환경 해양산업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의 강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이면 여수박람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기후변화와 해양의 직면한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여수박람회의 철학과 비전이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여수선언」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수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들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지난 3년간 여수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해양생태계 개선과 해양자원의 보존활용, 나아가 신 해양기술 개발을 지원해 온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포럼에서는 「여수선언」의 정신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을 비롯해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님,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ed) 유엔환경계획 사무차장님 등 유엔 해양관련 기구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신 것은 물론,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님, 글로벌 해양포럼(GOF) 회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만큼, 여수선언의 국제적인 확산과 상호협력을 위한 탁월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조록 오늘 여수선언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여수선언」이 나오기까지 많은 애를 쌓주신 선언문 성안(成案)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비센트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내외귀빈 여러분,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的 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과 혼신을 야끼시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약 2년 전, 중국정부와 2010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공식참가자들은 2010년 상해박람회에서 국제박람회기구와 유엔과의 협조 하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상해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바다와 연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여수선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유산이 되며, 더 나아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21세기 세계박람회의 위대한 유산의 일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님과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만 보더라도 이번 박람회 주제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향력 있는 전문가, 유수기관, 국제기구들이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조직위원회의 역량과 열의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실과 수치를 연구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전문가적 식견을 공유하고 관람객들과 지식을 나누며 궁정적이면서도 감화를 주는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우리 공동의 목표에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2012세계박람회 유치 기간 중 한국은 국가로서의 업적을 내세웠을 뿐 아니라, 해양과 관련된 우리의 도전과제의 시급성을 알리는 파급력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양의 미래가 위기에 있다면, 저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만큼, 건강한 해양자원이 곧 우리의 삶과 건강을 의미한다는 것을 피력하는 주제입니다.

여수엑스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선례를 따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고취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리우+20회의에서도 강조된 만큼 우리 모두의 목표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해양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각인시켜 줍니다.

2012여수엑스포는 정부, 국제기구, 대학,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를 일반 대중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곧 목도하게 될 여수선언은 2012여수엑스포 시초의 비전과 정신을 지금까지 여수엑스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반영해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와 비결된 여러 도전과제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수엑스포의 대단한의 밖은 내리지만, 여수선언은 이제 다시 시작임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를 통해 여수엑스포는 국가 간 대화를 이끌어 내고 관람객들이 인류의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인 해양과 해양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였습니다.

여수는 전 세계에서 114개의 공식참가자를 유치하여 각자가 서로의 성과를 선보이고 해양보호와 지구온난화 완화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전시관과 해양분야 모범사례를 살펴보며 우리의 해양자원의 질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청정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바다를 더 탐구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엑스포의 정신을 반영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의 틀은 무엇일까요?

여수선언은 우리의 해양이 곧 우리의 재산임을 인식시켜 줍니다. 해양은 우리 문명과 문화의 근원이며, 식량과 의약품의 공급원, 미래에너지의 보고자, 교역과 번영의 통로입니다.

국제사회가 바다와 연안의 녹색성을 위한 노력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촉구하며, 여수선언의 핵심을 구현한 여수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에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공동 하에 다년간 진행되는 협력프로그램인 여수 프로젝트는 2012여수엑스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미래 세계박람회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수엑스포는 뛰어난 건축양식, 기술, 문화행사로 명성을 떨쳤을 뿐 아니라, 지구 지원체계로서의 바다와 연안에 관심을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인상 깊은 전시관과 공연은 우리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박람회장은 개최도시 여수에 신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수엑스포의 파급력 있는 주제와 그 유산은 해양의 보존과 조화로운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는 참가자, 조직위, 관람객과 전문가들이 대립하지 않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실천적이고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고 실험하는 바다의 미래를 위한 실험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야말로 건강한 바다와 연안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세계박람회 전체의 목표, 그리고 여수엑스포의 근본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연설문, 등록시 현장 배포]
IV. 여수선언문 경과 보고

- 장도수 여수선언 기초위원장
여수선언문 경과 보고

1. 성안위원회 구성 및 초안마련

□ 기초/검토 위원회 구성
2010년 4월 해양관련기관 및 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17인으로 여수선언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8월 해양관련 고위 인사, 학회 및 대학의 장으로 구성된 16인의 국내 검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여수선언의 국제적 위상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인 해양연구소 및 국제기구의 수장 등 총 21인으로 국외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기초위원회 및 검토위원회 활동
2010년 구성된 기초 및 검토위원회는 2010년 7월 첫 회의를 열고, 이후 여러 차례 합동회의 활동을 통해 여수선언의 성격 및 의의, 선언주체 등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수선언의 실천적 요소로서의 여수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외 검토위원회는 2011년 4월 서울에 모여 여수선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수선언 국외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여수선언이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등록문서로 등재되는 것이 논의되었다.

2010년 이래로 11월 여수선언문 초안 마련을 위한 기초 및 검토위원회 합동회의 이래 수차례의 기초·검토 위원간의 대면회의(총 10회)와 이메일을 통한 전체 서면회의(총 10회)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초안성안일지(부록) 참조

2. 참가 국가/국제기구 의견수렴

여수선언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BIE 참가국 및 참가 국제 기구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발표와 보고(총 5회)를 통해 참가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BIE 안전등록시스템인 BOWS에 등재해 BIE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선언문 마무리 작업에도 제 4차 참가국 전시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3. 국내외 해양전문가 의견수렴

4. 지역사회 의견수렴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장,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여수위원장, 국회의원, 지역 YMCA 관계자 등과 여수선언 추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여수선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1.4.7/여수)

5. 관련부처 의견수렴

IV. 여수선언문 경과 보고 33

6. 언론보도

□ 국내·외 칼럼 및 인터뷰
경향신문, 동아일보, 코리아헤럴드, 여수 MBC, 동아일보, 원음방송, 부산일보, 광주방송 KBC, 연합뉴스 등 국내 유력 매체에서 여수선언의 의미 등 칼럼 및 인터뷰가 총 13회 진행되었다.

Voice of Russia, EFEverde, Lierte-algerie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매체에서 여수선언 소개 및 의의 등 칼럼 및 단신이 게재되었다. 특히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Rio+20 Oceans Day에서는 여수엑스포 및 여수선언 소개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Korea Herald, Yeouido Declaration to bring life to ocean ('12.5)

광주방송, 생방송투데이 ('12.7)

동아일보, 김창혁 전문가의 세상이야기 ('12.5)
7. 여수선언 지지서명 및 온라인 홍보활동

여수선언은 일반 대중에게 ‘해양으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의의를 알림과 동시에,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개막에 맞춰 지난 5월 12일부터 여수선언 지지서명이 박람회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난 7월 27일 목표치 5만명을 달성하였다.(8월 8일 현재 5만5천명 돌파) 또한 2012년 초부터 온라인 블로그 ‘바다의 소리’ 및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여, 대중과 소통하였다. 또한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부 록] 여수선언 작성 일지

- 여수선언 제 1차 기초위원회 이후 1차 초안 작성(‘10.7)
- 여수선언 제 2차 기초위원회 이후 2차 초안 작성(‘10.8)
- 기초 및 검토위원회 2차 초안 서면 검토 후 3차 초안 작성(‘10.10)
- 여수선언문 초안 마련을 위한 기초 및 검토위원회 협동회의 이후 나온 의견을 토대로 4차 초안 작성(‘10.12)
- 여수선언 국외검토회의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차 초안 작성(‘11.4)
- 관련부처 업무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6차 초안 작성(‘11.7)
- PICES 집행이사회, BIE 참가국회의에서 나온 의견 및 빌리아나 기초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7차 초안 작성(‘11.7)
- 여수선언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 및 이후 추가 서면 검토를 통한 8차 초안 작성(‘12.2)
- 관련부처 협의 이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최종보고서 여수선언 9차 초안 작성(‘12.5)
- 여수세계박람회 제 18차 정부 고위급 지원실무 위원회의 이후 국내외 위원 및 참가국의 최종서면검토를 통해 여수선언 최종본 완성(‘12.8)
V. 패널 토론: 기조 발언문

- 좌 장: 칼-크리스천 슈미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장
- 윌리 텔라비 투발루 총리
- 이리나 보코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
-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 코지 세키미즈 유엔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 빌리아나 씨신세인 글로벌오션포럼(GOF) 회장
신사 숙녀,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 연설을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투발루 정부와 시민들이 감사(fakaʻetaitai)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연설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수 세계박람회의 귀중한 유산인 여수선언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언은 해양 생태계와 자원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해양 환경과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존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긴 해양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바다와 연안은 여전히 투발루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높은 투발루 법률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래를 향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된 수입원과 식량까지도 해양 생물자원에 의존합니다. 또한, Tuvalu Maritime Training Institute는 많은 어린이들을 선원으로 훈련시켜 상선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가정의 주 소득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여수선언의 주요내용은 투발루의 국토, 바다, 그리고 주민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투발루는 26평방킬로미터의 영토가 백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발루 시민들은 바다와 연안의 중요성을 절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투발루의 수도 푸나푸티는 어떤 곳에서도 바다와 2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군소도서국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적 취약성, 빠른 속도의 인구성장, 쓰레기 처리문제, 제한된 지상자원, 해양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 경제적 다양화의 부재,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지리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투발루의 환경과 시민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투발루의 환경적·경제적 취약성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앓고 있는 군소도서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의 부정적인 예측들이 사실화 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척수준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제 답변의 요지는 국제사회가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협력이 과학적, 지역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발루와 같은 군소도서국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에 “녹색 경제”는 좀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수선언과 여수 프로젝트가 이 제안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저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저지대 환상 산호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투발루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투발루는 작년에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인해 물 수급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구조적도 국제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토지와 작물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십 년간 매월 조수간만의 차가 증가함에 따라 우물과 토양이 염수오염 되어 가뭄의 영향이 더 커졌습니다. 이 오염은 농작물 생산
감소, 식생활 변화, 그리고 식량 수입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누리기로 원한다면 능력배양과 실질적 활동들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uvalu mo te Atua - Tuvalu For God
기조 발언문

이리나 보코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

신사 숙녀, 그리고 귀빈 여러분,

2012년은 전지구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해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가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 “인간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해양과 이의 건강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수선언문에서 인용).

이 문구들은 매우 강력하지만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여수선언의 5번과 6번 조항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해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은 “해양과 우리 문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니다(여수선언문에서 인용)”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연구를 향상시키고, 관측 시스템을 확장하며, 생태계 기반의 해결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들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체계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과학연구를 토대로 더 나은, 더욱 연계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상기의 목표들은 오랫동안 유네스코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유엔지속개발가능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IOC의 주관으로 FAO, IMO, 그리고 UNDP가 공동으로 집필한 “해양과 연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을 발행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구들에 감사를 표합니다.

청사진은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 가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의 축소를 비롯하여 그런,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계, 해양 관리의 강화와 국제적 연구,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이 네가지 목표에 해당합니다.

이 목표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큰 틀이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1992년에 처음으로 열린 지구 정상회의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 다.

기술의 발전은 해양에 대한 더욱 정밀한 감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엔회의가 처음 열렸던 시기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많은 과정들을 이제는 해양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해양의 상태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밀착이 되는 “Regular Process”로 더 잘 알려진 전세계해양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해양과 해양이 직면한 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측 및 모니터링, 지식 관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대응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여수선언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전지구적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을 입니다.

여수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전지구해양관측체제 (GOOS)는 현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국가들이 해양 관측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해양의 많은 부분, 특히 남대서양과 남태평양은 거의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해양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조치를 취하고, 해양 생태계의 악화를 완화하고 싶다면, 해양 관측은 과학을 토대로 포괄적, 연계적으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진국들의 기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국가의 역할 또한 필수적입니다.

올해 세인트키즈네비스, 몬테네그로, 온두라스, 그리고 키리바시 이 네 개 국가가 추가로 IOC에 가입했습니다

해양을 위한 공통된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모든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IOC는 IOC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국가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국가들이 여수선언을 실천하고 해양을 보호하는 데에 다 같이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해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즉각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2015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새 “Ocean Compact”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Ocean Compact 는 유네스코의 “해양과 연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으로부터 많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유엔의 해양 관련 권한을 더욱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유엔시스템에 제시합니다.

유네스코는 Ocean Compact 실행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정부와 여수 세계박람회를 구성하는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여수 엑스포가 전세계에 배움의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조 발언문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신사, 숙녀, 그리고 친애하는 패널리스트 여러분,

먼저 우리 해양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여수선언을 만드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여수선언위원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양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해양은 가장 적게 탐사된 세계이며, 우리는 해양보다도 지구 밖 우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곳 여수에 있는 많은 전시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바다 아레에 진정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해양은 해수면부터 바다 깊은 곳까지 생명의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숨쉬는 산소, 마시는 물, 섭취하는 단백질 등 생명의 필수 요소들을 제공하는 해양이 인간의 삶의 가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 해양의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동 회의는 녹색 경제 접근을 통해서만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소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UNEP는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 ‘Green Economy in a Blue World’를 통해 녹색 경제가 어업부터 심해까지 탐사까지, 해양의 여러 분야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며, 녹색 경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대책과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선박 분야에서는 외래침입종의 연안 생태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산업체들의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을 통해 녹색운동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선박평형수 처리 관련 신생 산업이 발전하였고 관련 업무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최적 수준으로의 어획 능력 감축과 어류 자원의 회복을 통한 잠재적 이익은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억 달러 정도 입니다.

해양기반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해양기반 에너지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광업은 150개국에서 주요 수입원의 상위 5위 중 하나이고, 60개국에서는 상위 1위입니다. 저개발도상국의 1/2을 관광업이 외국환 거래의 주요 원천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원생산에 필수적 요소인 농경과 폐수를 재활용하여 나오는 영양물질들을 문제가 아닌 자원으로 보았을 때, 이들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해양 분야에서 바다를 위한 녹색 경제 접근을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예시입니다.
또 무슨 조치가 필요할까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해양 과학 및 연구에 대한 강화와 관련 의식 고취는 해양생태계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알고 이해하며,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는지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해양 자원의 사용에서 과잉 이용 또는 경제적 비효율을 부추기는 경우에는 관련 보조금을 더욱 친환경적인 접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해양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통해 산업체들이 해양자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금전적 보상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 녹색 경제 접근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자본의 허용성, 보호 및 유지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비롯한 시민 사회까지 이러한 변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녹색 해양경제로의 변화는 개인, 소비자, 투자자, 사업가 또는 정치가, 각각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여수선언은 우리가 우리의 해양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 경제 접근이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접근법은 해양 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여 다음 세대들이 해양으로부터의 녹색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UNEP은 녹색 경제 접근의 변화를 추구하는 회원국들, 특히 해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여수선언의 실현을 위한 저희의 협신이라고 말씀드릴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기조 발언문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친애하는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님,
Willy Telavi 투발루 총리님,
반기문 UN 사무총장님,
의장, 위원장님,
패널님들,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이 역사적인 행사인 여수선언포럼에 초대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조직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세계의 어업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해양생물과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각국의 증가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영양과 생계수단의 수요에 대한 수산 및 양식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강화된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한 이 자리에 대한민국 총리, 투발루 총리, 사무총장, 그리고 많은 귀빈들과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수산과 양식은 전지구적, 국가적, 그리고 지방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 12%의 생계수단이 직접·간접적으로 위의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여자와 아이들이고, 그들은 지방에서 작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17%와 전체 저소득 식량부족국가의 1/4은 수산과 양식이 주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무총장과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을
로 탄생한 ‘Zero Hunger Challenge’ 프로젝트에서 수산 및 양식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체적인 식량공급은 충분하지만 9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과 저개발국가 인구의 70%가 넘는 극빈곤층의 상황을 생각할 때, 더 많이 생산하는 것만이 식량 확보의 유일한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산과 양식은 식량 확보, 영양 공급 뿐만 아니라 빈곤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다와 연안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어획 및 해양 오염과 같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파생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는 수십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수산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수산물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양식은 2030년까지는 최소한 두 배 이상 증가해야 인간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획으로부터의 한정적인 공급을 고려했을 때,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가능한 양식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인류의 식량 소비율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일반 어획량을 넘어 섭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2년에서 2021년까지의 일인당 밀, 쌀, 식물성 기름, 유제품, 섭 탕 소비와 비교했을 때, 양식이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바다 목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5개의 FAO 지역협의회 중 3개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주변 국가들이 양식을 우선과제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실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의 식량과 영양의 확보를 장담할 수 없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악화시키며, 수십억명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군소도서국에서의 식량 확보와 빈곤 완화는 그들 바다의 지속 가능한 사용, 특히 어류자원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성과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귀중한 해양 자원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 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빈곤자들의 식량과 생계수단의 권리 를 보장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와 연안에 대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전지구적인 선결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여수선언은 위의 해결방안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양 거버넌스 강화, 주체국의 책임감 강화, 기술 및 관리적 능력 개선, 그리고 해양 자원의 보존과 사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없다면 여수선언은 완전히 실패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다와 어장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경쟁적인 해양 및 해양자원의 남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계획되고 일관된 실천 방안이 필요 합니다.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의 행동강령, 관련 기구에서 추천 된 실천 방안 그리고 유엔 해양법 조약의 실천은 좋은 관리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분야적, 그리고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생태계 기반 접근법에 관해서 낙관적인 예에 대한 발견, 확장, 그리고 실용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어장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된 수산업은 더 생산적이기에 세계의 빈곤과 싸우는데 공헌합니다. 우리는 FAO의 환경 훼손이 낮고 연료 효율이 높은 어업 기술 및 실행 개발을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해야합니다. 이것은 곧 해양자원 공급 체계 내 수산업의 탄소 발자국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물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양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방법을 찾아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기후에 취약한 사회들이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래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편애나 거래장벽의 왜곡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사회의 대표, 민간부문의 조력자들을 포함한 넓은 분야의 실천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Multi-Partner GE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rogram"과 새로 시작한 Global Partnership for Ocean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양어수가 전지구적 사안으로 자리 잡은 유엔지속가능한개발회의의 공정적인 결과들도 언급하면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좀 더 가까이 가져
다 놓았다고 믿습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결과문서에는 식량권리 확보, 소규모 생산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모델로의 전환, 그리고 세계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안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식량안보위원회의 식량 관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를 통해 사람들이 토지, 숲, 그리고 어장을 사용 혹은 소유 할 권리를 보호해주는데 도는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 라고 하는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수선언을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자원 사용에 대한 서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선언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 줄 서약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은 맹목적인 행동을 권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여수선언은 국제사회, 즉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 명시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약속하는 선언입니다.

제 연설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 발언문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인간과 바다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어 바다에 의한 삶에서 바다로의 삶으로 페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 어떻게 원하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거기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저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반박에 되지 않는 실험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심해에 있는 망간단괴는 코발트, 니켈, 구리와 같은 유용한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발전은 이러한 자원들의 활용도 중요하다는 이러한 활동들로 인한 환경적 악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악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미래 연구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침몰선박 인양, 심해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많은 다른 어려운 심해지 활동들은 자동심해로봇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로봇들은 초음파 카메라, 음파 수심측정기 및 다른 진보된 장비를 사용하여 인간이 한 장수가 한 해제를 넘어 극한 환경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더 진보된, 그리고 장기적인 해양관측은 향상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나은 자원 관리와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스마트폰, 태양발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다른 유용한 기술들은 희귀 원소들을 필요로 하며, 이 원소들은 육상에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가치 있는 광물들이 광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해양에 접근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과학기술은 해양온도차발전을 포함한, 해양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재생 가능하고 대체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인해 에너지변환의 고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세계경제는 평균적으로 아니라 조류, 조력, 해류, 열에너지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시키는 단수화 기술로, 특히 아프리카의 건조지역과 군소국가를 고려한다면, 바다는 10억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생명은 인간의 식량의 원천으로만 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발전을 통해, 해양은 바이오디젤, 화장품, 의약품, 분해가능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바다의 기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략 몇 가지 방법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작업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바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성과와 발전은 시간이 걸리며, 미리 준비하는 정신과 선견지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발언문

코지 세키미즈
유엔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설문, 등록시 현장 배포]
기조 발언문

빌리아나 씨센세인
글로벌오션포럼(GOF) 회장

존경하는 의장님, UN 사무총장님, 김황식 총리님, Telavi 총리님, UN 산하기 구의 대표님들, 그리고 친애하는 참석자 여러분,

2012년 6월에 개최되었던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해양과 지구의 생존 및 인류의 복지를 위한 해양의 역할에 대한 이슈는 국제적 안건의 최상위 의제 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수세계박람회와 여수선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해양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연안 및 섬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지구 시민들의 해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공동체, 특히 시민 사회를 대표하여, 여수 프로젝트와 “녹색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수그러들지 않은 열정을 보여주시고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기간 동안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목표하신 유엔사무총장, 그리고 건강한 해양 및 번영하는 연안 사회 보장을 위한 차별화 된 전망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UN 산 하기구의 대표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포럼과 선언문을 조직하고 준비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장도수 박사를 비롯한 KIOST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시작한 중요한 첫걸음을 토대로 여수 선언의 정신 안에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의 변화에 따른 연안 공동체의 생활기반에 대한 위협 등 많은 요인들이 우리를 재난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신적인 기회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지혜롭게,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강화된 연구기관과 강화된 역량이 요구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해양 관련 이슈들을 UN 시스템의 우선 사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우리는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해양 관련 이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총장님의 열정과 비전이 해양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UN이 중요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관관을 해쳐 나가야 할게 지시하면서, 우리는 UN의 발전되고 결단력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UN 사무총장 차원의 높은 관리 메커니즘이 광범위한 접근범위를 제시하고 주요 위협과 기회에 대한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통합된 생태계 기반의 해양관리를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전지구적 수준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1992년 라우 지구정상회의의 결론은 필요할 때마다 의식 없이 해양자원을 사용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해양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통합된 내용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992년부터 우리는 통합 생태계 기반 관리의 기초를 다지는 놀라운 발전을 해 왔고, 통합적 거버넌스를 위한 범제도적 장치를 형성하고 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국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국가 관할권 내의 모든 연안 지역과 해양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입법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안 및 해안 법규의 제정
- 해양공간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된 연구기관들과 해안 및 연안 정책 결정 과정의 강화
- 개발도상국의 연안 대부분 지역의 필요한 가난과 불평등 처리
-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제공:

최소한 절반 이상의 적응 자금이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연안과 섬 공동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 광역해양생태계 프로그램 및 지역해양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지역적 그리고 원경지역에서의 통합된 해양 거버넌스 개발 및 실행의 가속화와, 지역적 및 국가적 수준의 활동 가이드를 위해 통합된 해양 거버넌스의 지역적 프로토콜 제작의 장려

전지구적 차원에서
- 다목적활용 분쟁처리, 신활용법 관리, 그리고 취약한 생태계와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국제적 공동목표인 국가 관할 외 지역 (ABNJ)의 생태계 기반 관리 지향
- 기존 기관이나 신생 기관이 ABNJ 에 통합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다목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을 설립

셋째, 우리는 반드시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의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능력 배양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진척이 가장 느린 분야입니다. 우리 가 새로운 계획과 혁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이 “바 다로부터의 녹색 성장”의 달성을 위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해양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혜택을 얻기 위한 능력과 주요 해양 관련 도전과제들에 대응하는 역량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능력배양은 다음 사항들을 필요로 합니다:
- 해양, 기후, 생물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훈련을 포함
-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시급한 도전과제들에 필요한 자금 조달
- 지식과 기술의 공유
- 능력 배양 공여에 참여한 국가, 기부자, 국제기구, 그리고 학계의 모든 이들의 힘을 결집하는 노력

여수선언 및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결과 실행을 위한 글로벌 오션 포럼 계획 2001년부터 11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전지구적 해양의제 추진을 위해 일 해온 글로벌 오션 포럼은 유엔지속가능발전가능회의 결과와 여수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계획을 발표합니다:

1) 오션 왓치(해양 감시): 1992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세계 의사결정자들의 우선 의제였던 ‘해양, 연안, 그리고 군소도서국’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 체계적으로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보고하며, 모범 사례를 파악.
- 전지구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도자들과 다른 이해관계자(NGO, 산업 계, 과학자, 그리고 대중)가 참여하는 담화에 중점을 두는 국제컨퍼런스를 추진.

2) 오션 레디니스(해양 준비태세):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통합된 방식으로 정부와 연구기관의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 워크를 발 전시킬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양과 연안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제들과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해양 준비태세’를 위한 국제적 전략을 개발합니다.
통합 해양 관리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국내 고위급 해양 리더들, 지역사회 리더들, 다음 세대의 리더들,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식 및 도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 대해 종전에 없었던 대중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해양 생태계가 복구될 수 없는 터핑 포인트 지점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유 유산인 해양으로 묶인 우리, 국제 공동체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정치체계부터 국민들의 일생생활까지, 해양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 UN 산하기관, 산업기관, NGO, 과학자, 그리고 대중 어느 누구도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다와 연안에 경외감을 가지게 해 줄 저탄소 경제와 "Blue Society"의 새 비전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천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Dr. Biliana Cicin-Sain
President, Global Ocean Forum
Director, Gerard J. Mangone Center for Marine Policy
University of Delaware, USA
VI. 여수선언의 의의 및 주요 키워드
여수선언의 정신과 키워드

여수선언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나타내고자 한 주제와 정신들을 담고 있으며 해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약 및 규범들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요 국제회의들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수선언은 해양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유지해 주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식량, 생계 및 문화의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풍부한 해양자원은 인류 생존과 문명, 변연에 절대적인 존재다. 현재 인구 급증과 해양이 처해 있는 각종 현안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해양의 중요성은 특히 부각된다.

여수선언은 해양과 관련된 사안들이 국제정책 대상에 우선순위로 다루어지도록 축구하며, 해양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건강한 해양을 물려주기 위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농동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지구공동체 모두가 세계 인류 변연과 발전에 바다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연결체로서의 바다의 역할이 지속되어 지길 희망한다.

해양생태계를 보다 잘 보호하고, 해양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적이고도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추구한다.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해 등 재난들이 해상에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연구 증진 및 해양관측 능력을 향상할 축구한다.

모든 인류의 번영은 하나로 연결된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가들은 합심하여 공동체적으로 해양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언문은 군소도서국을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이 해양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고 자국이 당면한 해양관련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선언문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적 유산이자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지원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를 국제사회가 크게 환영하며 선언에 담겨진 정신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VII. 여수선언문

- 낭 독 : 윌리 텔라비 투발루 총리
THE YEOSU DECLARATION
on the Living Ocean and Coast

Under the theme of “The Living Ocean and Coast,” we, the organizers, participat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pecialized agencies, and experts, gathered at the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held in Yeosu, Republic of Korea, from 12 May to 12 August 2012 under the auspices of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Respecting the objectives embodied in the sub-themes of “Coas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New Resources Technology,” and “Creative Maritime Activities”;


Noting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the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and other important multilateral conventions, agreements, and action plans related to the ocean and coasts;
**Emphasizing** that the ocean covers more than seventy percent of the planet’s surface, is crucial to sustaining life, provides food and income to billions of people who depend on marine ecosystems for their livelihood, and connects people, markets, and communities as the silk-road for over ninety percent of the world’s trade;

**Mindful** of the pressures and threats facing the ocean, seabed, regional seas, coasts, and islands, such as unsustainable fishing practices and resource exploitation, discharge of marine pollutants and debris, habitat destruction, introduction of invasive alien species, ocean acidification, and climate change phenomena, including extreme weather events, rising sea levels, and melting of polar glaciers;

**Understanding** that such impacts have global ramifications and are not confined to a single country or region, and that collaborative international efforts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detrimental impacts of humankind on marine ecosystems; and

**Having** discussed the role of the ocean in meeting the sustainabl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goals of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a new vision of “green growth from the sea”;

**Declare the following:**

1. The ocean is a vital part of our planet and an essential element of human civilization. We call for global leadership to raise the awareness of governments on the need to better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elevate ocean-related issues to the top of the global policy agenda.
2. We cal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erve and develop maritime cultures in order to enlighten all elements of civil society on the need for greater stewardship of the marine environment.

3. We call upon all nations of the world to cooperate in halting illegal practices on the sea, including piracy and hijacking, to preserve the ocean as a safe and effective transportation network linking the global community.

4. We call for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to undertake “integrated ecosystem-based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particularly global fish stocks, to manage them in a sustainable manner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5. We call for the overall scientific community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ocean through expanded real-time ocean observing systems to provide resource managers and policy-makers with timely and reliable data, enabling rapid response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tsunamis.

6. We look towards the ocean as a new engine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light of the gradual depletion of many land-based resources and the food security concerns of a growing global population. We call upon all nations to increase investment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innovative industries that use marine resources and renewable energy in an environmentally-friendly manner for the prosperity of all humankind.
7. We call for increased assistance to developing nations, including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in addressing their ocean-related concerns and sustainably utilizing their marine resources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8.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Yeosu Project, aimed at providing developing nations with capacity building support on ocean-related issues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and technology-transfer, as an important legacy of the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9. We also welcome the launch of the “Oceans Compac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ct in a coordinated manner in delivering its ocean-related mandat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goal of “Healthy Oceans for Prosperity.”

10. In the spirit of this Declaration to provide the world with a new vision of “green growth from the sea,” we call for al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work together in achieving our common goals for the ocean.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

우리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 아래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 여수에서 개최된 2012여수 세계박람회에 주최국, 참가국, 국제기구, 전문기관, 전문가로서 함께 모여,

“연안의 개발과 보존”, “새로운 자원 기술,” “창의적 해양 활동”이라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하위주제의 목적들을 존중하고,


UN해양법협약, UN기후변화협약, UN새천년개발목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 생물다양성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기타 해양연안 관련 주요 다자간 조약, 협약 및 행동계획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인지하고,

지구 표면의 70퍼센트 이상이며 지구상 생명체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바다는 해양생태계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에게 소득과 식량을 제공함은 물론, 인간과 시장, 그리고 사회공동체를 연결하고 세계 교역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운송하는 실크로드임을 강조하며,

해양, 해저, 지역해, 연안, 섬들이 과도한 어업행위와 자원개발, 오염물질과 쓰레기의 유입, 서식지 파괴, 교란성 외래종 침입, 해양산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해수면의 상승, 극지방의 해빙과 같은 많은 문제와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주요 위협들은 개별국가나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범지구적 문제이므로 우리 인류가 해양생태계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국제적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하며.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지구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환경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바다는 지구생명체의 생존에 절대적인 공간이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해양환경을 더욱 보호할 필요성을 정부들에게 인식시키고, 해양관련 사안들이 국제정책 대상에 우선순위로 부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 세계 정책임양자들에게 요청한다.

2. 우리는 시민사회 일원들이 해양환경 보호에보다 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양문화의 창달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3. 우리는 해양이 지구공동체를 연결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송로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적-해상납치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세계 모든 국가가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4. 우리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어족자원을 포함한 전 세계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통합적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징후와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자원관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한 해양관측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해양과학계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세계인구 급증에 따른 식량안보 및 육상자원의 점진적 공급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해양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전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된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과 혁신산업의 발전에 투자를 늘려 줄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7. 우리는 국제사회가 개발원조 및 투자지원, 국제협력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도서국을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들도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자국이 당면한 해양관련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8.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중요한 유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훈련 및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하는 “여수프로젝트”를 환영한다.

9. 우리는 “인류번영을 위한 건강한 바다”라는 목표 하에 각종 해양관련의 무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조직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한 유엔 사무총장의 “해양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약정 (Oceans Compact)” 제정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양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모든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VIII. 2015 밀라노 엑스포 소개

- 로베르토 포르미고니 2015 밀라노 엑스포 정부대표
인사말 및 서론

대한민국 총리님, UN 사무총장님, BIE 사무총장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 직위원장님, 관계자분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 애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모든 친구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여수박람회와 여수박람회의 성공으로 인정박람회와 등록박람회를 포 함한 모든 세계박람회의 현 특징과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박람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수십 년간 변화를 겪어왔고, 그 덕분에 여기 한국에서처럼 정부 와 정책 사이의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자 세계인들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5 밀라노 박람회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밀라노 박람회가 포괄적이고 실용적이며 창조적인 참여형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람회의 험은 우수한 계승성에 있습니다. 박람회는 모두와의 열린 만남이자, 인류 앞에 놓인 크나큰 시련을 고민하고 미래의 비전을 계승하면서 한 세기 뒤에 남는 세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밀라노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즉, 여수에서 밀라노로, 물에서 식량으로, 엑스포는 계승 됩니다.

저는 2015밀라노박람회 정부대표로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계주의 지향점을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서는 최근 « 변영과 활력 그리고 안정성을 위한 우리의 희망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 기반을 통합하는 방법을 찾는 능력에 달리티다 » 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6월 2일, 뉴욕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UN 회의인 리오+20(Rio+20) 준비 콜로키움)

2015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 개념인 식량과 지속성은 제 3차 UN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선정된 인류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지속적인 식량 확보로 생명의 에너지를 보장 »이라는 박람회 주제가 식량과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밀라노 박람회의 주제는 인간의 활동을 식량, 농업, 식량 안보, 물, 에너지, 녹색 성장, 환경, 유통성, 지속성, 연구와 혁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오직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상된 개발 아이디어를 인간의 책임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전적으로 인간적인 개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늘날 세계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앞에 놓인 커팅나라 시련에 맞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능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고, 열려 있으며, 결단력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제시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이런 면에서 2015 밀라노 엑스포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실현불가능한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기 보다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더 나은 행동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속가능한 혁명’으로 가는 실현가능한 제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수와 함께 하는 계승 정신 속에서 우리 박람회의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사회의 참여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룩한 것처럼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수선언과 훌륭했던 여수 엑스포의 폐막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밀라노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놀라움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 줄 밀라노세계박람회에서 다시 만납시다!
부 록:

여수선언 기초/검토 위원 명단
여수선언 기초/검토 위원 명단

기초위원회 위원 (가나다 순)

Patricio A. Bernal  Project Coordinator,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Biliana Cicin-Sain  President, 세계해양포럼 (GOF)
강성길  해양CCS연구단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김성귀  해양연구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김수암  자원생물학과 교수, 부경대학교 (PKNU)
김요섭  통상투자진흥과장, 외교통상부 (MOFAT)
김응서  제1부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오윤열  해양정책과장, 국토해양부 (MLTM)
유신재  괘과평의회의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윤분도  국제기구과장, 농림수산식품부 (MIFAFF)
윤성철  사무총장, 월드오션포럼 (WOF)
이문옥  해양과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CNU)
이용희  법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KMU)
이윤호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장도수 *  국제협력본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정서용  국제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KU)
최영호  인문학부 교수, 해군사관학교 (KNA)

*여수선언 기초위원장

검토위원회 위원 (가나다 순)

강신기  제1사무차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EXPO)
강정극  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강창구  회장, 한국해양환경공학회 (KOSMEE)
고철환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SNU)
김명섭  총장, 부경대학교 (PKNU)
김학소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노영재  회장, 한국해양학회 (KSO)
박상길  회장, 한국해양공학회 (KSOE)
<table>
<thead>
<tr>
<th>人物</th>
<th>职务和机构</th>
</tr>
</thead>
<tbody>
<tr>
<td>박철</td>
<td>해양환경과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CNU)</td>
</tr>
<tr>
<td>박한일</td>
<td>총장, 한국해양대학교 (KMU)</td>
</tr>
<tr>
<td>변상경</td>
<td>의장, 정부간해양학위원회 (UNESCO/IOC)</td>
</tr>
<tr>
<td>손성환</td>
<td>기후변화대사, 외교통상부 (MOFAT)</td>
</tr>
<tr>
<td>연영진</td>
<td>해양정책국장, 국토해양부 (MLTM)</td>
</tr>
<tr>
<td>이정열</td>
<td>해양생명과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KNU)</td>
</tr>
<tr>
<td>조상래</td>
<td>회장, 대한조선학회 (SNAK)</td>
</tr>
<tr>
<td>채장원</td>
<td>회장, 한국해안·해양공학회 (KSCOE)</td>
</tr>
</tbody>
</table>

국외검토위원회 위원 (알파벳 순)

<table>
<thead>
<tr>
<th>人物</th>
<th>职务和机构</th>
</tr>
</thead>
<tbody>
<tr>
<td>Susan Avery</td>
<td>总裁, 哈佛海洋研究所 (WHOI)</td>
</tr>
<tr>
<td>Alexander Bychkov</td>
<td>行政秘书, 北太平洋海洋科学组织 (PICES)</td>
</tr>
<tr>
<td>Braulio Dias</td>
<td>行政秘书, 生物多样性公约 (CBD)</td>
</tr>
<tr>
<td>Nicole Glineur</td>
<td>程序经理, 地球环境基金会 (GEF)</td>
</tr>
<tr>
<td>Yves Henocque</td>
<td>高级顾问, 法兰西海洋开发研究所 (IFREMER)</td>
</tr>
<tr>
<td>Paul Holthus</td>
<td>行政主任, 世界海洋委员会 (WOC)</td>
</tr>
<tr>
<td>Andrew Hudson</td>
<td>主席技术顾问, 联合国开发计划署 (UNDP)</td>
</tr>
<tr>
<td>Vicente Gonzalez Loscertales</td>
<td>秘书长, 国际展览局 (BIE)</td>
</tr>
<tr>
<td>Raphael Lotilla</td>
<td>行政主任, 东亚海洋环境管理科学院 (PEMSEA)</td>
</tr>
<tr>
<td>Arni M. Mathiesen</td>
<td>副主任-总干事, 国际粮农组织 (FAO)</td>
</tr>
<tr>
<td>Stefan Micallef</td>
<td>部门主任, 国际海事组织 (IMO)</td>
</tr>
<tr>
<td>Stephen de Mora</td>
<td>首席执行官, 普利茅斯海洋研究中心 (PML)</td>
</tr>
<tr>
<td>Trevor Platt</td>
<td>行政主任, 经济合作与发展组织 (OECD)</td>
</tr>
<tr>
<td>Carl-Christian Schmidt</td>
<td>部门主任, 经济合作与发展组织 (OECD)</td>
</tr>
<tr>
<td>Michael Sparrow</td>
<td>行政主任, 南极研究与协调委员会 (SCAR)</td>
</tr>
<tr>
<td>Achim Steiner</td>
<td>行政主任, 联合国海洋环境基金会 (UNEP)</td>
</tr>
<tr>
<td>Javier Valladares</td>
<td>主席 (前), 韩国海洋部海洋部</td>
</tr>
<tr>
<td>Philippe Vallette</td>
<td>总经理, 法兰西诺很方便 (Nausicaä)</td>
</tr>
<tr>
<td>John Volkman</td>
<td>副总裁, 国际海洋研究委员会 (SCOR)</td>
</tr>
<tr>
<td>Wendy Watson-Wright</td>
<td>行政秘书, 韩国海洋部海洋部 (UNESCO/IOC)</td>
</tr>
<tr>
<td>Zhanhai Zhang</td>
<td>主席 (前), 韩国海洋部海洋部 《南太平洋》分委会 (IOC/WESTPAC)</td>
</tr>
</tbody>
</table>